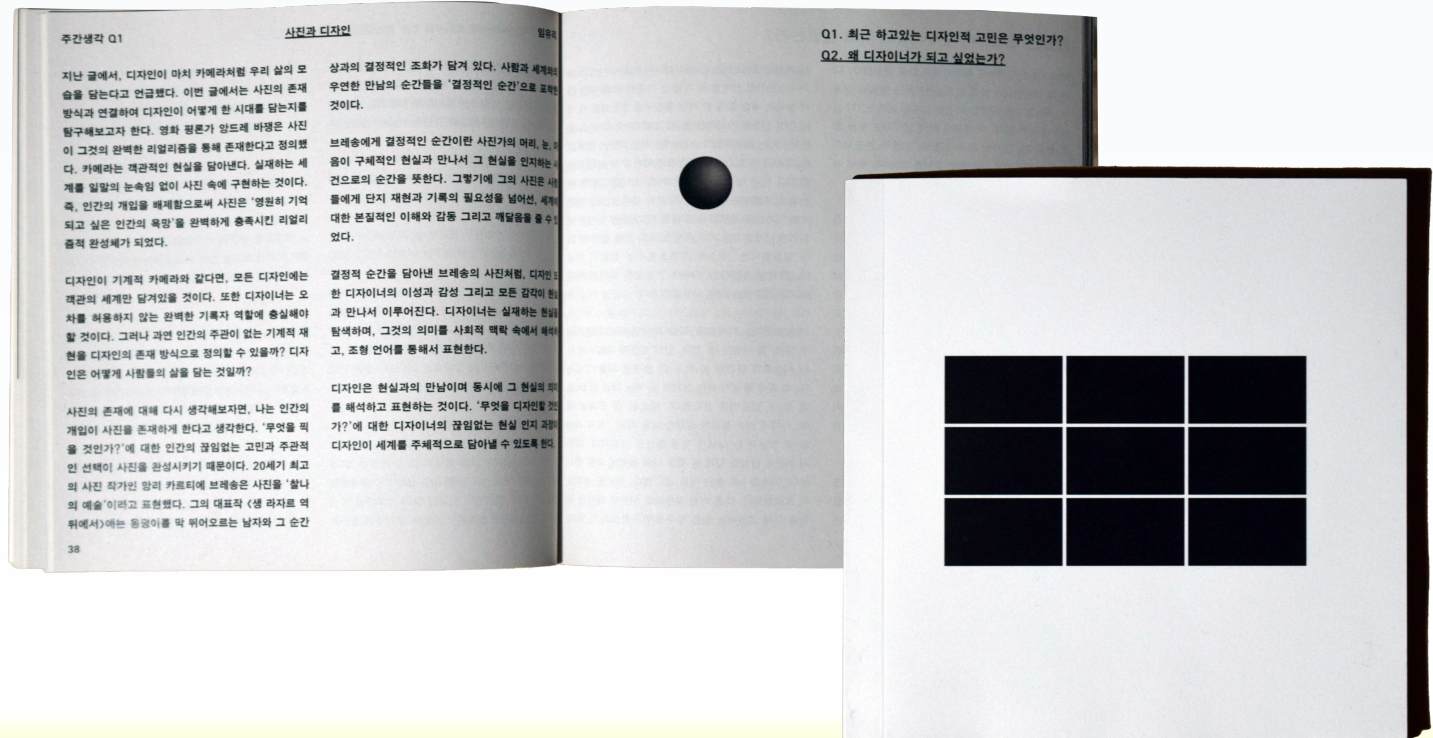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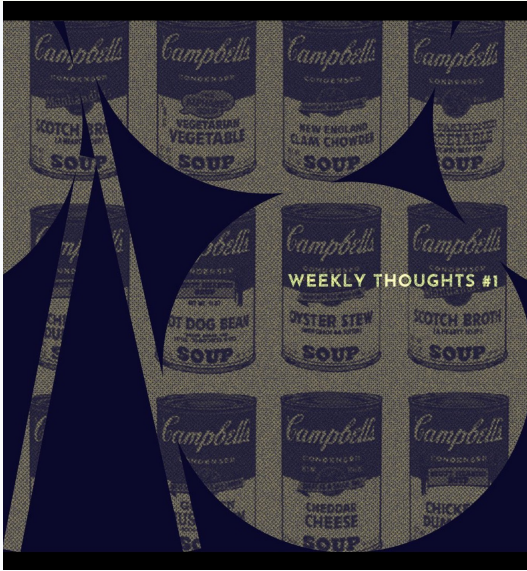


Weekly Thoughts

Weekly Thoughts is an anthology that contains short essays written by member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ign Society. During summer vacation, we wrote about multiple thoughts related to design, such as the reason for deciding to become a designer, the inspiration for design captured in daily life, and our conception of design. Then I gathered and edited all of those essays. Thanks to this project, I could organize my complicated thoughts: what I like, what I want to be, and what kind of design I want to do in the future.





shwrks_

shwrks_ 나는 왜 포스터를 좋아하는가?

Keyword : poster, reproduction

- 밥터 벤아민의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

나는 포스터가 좋다. 포스터가 지나는 물성과 제작 과정에서 형성되는 포스터의 "가치"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포스터로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디자인하는 그래픽 요소를 어떻게 가공하고 배치하여 포스터를 만들어낼 지 고민한다. 그리고 그 포스터를 어떻게 출력하고 배포할지 생각한다. 포스터는 좀더 특정한 다수에게 특정한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는 "출력물"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포스터가 인쇄되지 않은 채 웹 상에서도 공유되지만, 아뎀트 포스터가 지나는 근본적인 의미와는 별다른 곳에 놓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만드는 데에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터는 보통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출력되고,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1) 출현해 사람들에게 시각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포스터는 처음 제작될 때부터 "복제 가능한"을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아니, 애초에 "복제"라는 것 자체가 포스터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복제성이 포스터의 선전성과 정치성을 형성한다. 벤아민은 제의적, 지속적, 영권적 성격을 지녔던 과거 예술품과 달리 복제 가능한 현대에 이르러 대중예술은 제의가 아닌 "정치"에 바탕을 두게 된다고 설명하더라.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기술복제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예술이 바로 영화라고 말한다.

"완성된 영화는 아주 많은 영상물과 영상의 줄에서 조망자가 조립해 만들어져 나온다. 또한 처음부터 그 영상물은 일련의 촬영된 것들에서"

juicyaloe님 외 27명이 좋아합니다

7월 27, 2021

댓글 달기...



shwrks_

shwrks_ 왜 디자인이 되고 싶었는가?

Keyword : communication, generalist, ludens

나는 이렇다.

- 1) 합리적인 시스템

조형적인 시스템 안에서 규칙에 따라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한다.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 그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충분한 협력이 필요하다. 합의하는 과정에서 실속이 필요하다. 실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련의 과정들이 모여 합리적인 시스템이 완성된다.

- 2) 관심사 유목민

좋아하고 관심있는 것이 늘 많았다. 그러나 뭐 하나를 깊게 파거나 진득하게 해내진 못했다. 하나에 몰입하다가도 금세 질려서 의욕이 사라졌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정해져 된 알고 넓은 접지자들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끔 인지는 아무말이나 농담거리로 사용되곤 했다. 한 분야의 전문가나 오타쿠들은 내게 신앙의 대상이었다.

- 3) 즐거움은 필수적

되도록은 다양한 상상부터 시작해서, 어이없는 말장난, 농담따먹기, 최신유행 밈, 게임, 각종 취미생활, 새로운 지식 등 나를 재밌게 하는 것들은 내 삶에 필수적이다.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고, 모든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쾌적 존재라고 했던 하위깅의 말을 떠올려보면 확실하 나는

juicyaloe님 외 23명이 좋아합니다

8월 14, 2021

댓글 달기...



shwrks_

shwrks_ design system effect?

Keyword : design system, branding, paratext

최근에 팀으로 작은 브랜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브랜드 프로젝트들이 오래 그맛도, 해당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비전등 배이스로 로그하고 그해 픽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곳에 응용하는 작업이었다. 디자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언어"로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과 언어로 정의된 브랜드 가치를 합치고, 디자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된 작업 흐름이었다.

특정한 메시지나 주제를 조형 언어로 해석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식의 작업(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 등)과는 다르게 브랜드를 마다... 구축된 시스템이 숙주라면, 그 시스템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제품(시각물은 숙주 시스템에 기생(?)하는 것 같다고 할까...), 숙주가 되는 시스템이 알맞게 조직되어있지 않으면, 가시어 파생되는 다른 작업들이 힘을 쓰기가 힘들다. 그만큼 하나의 시스템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디자이너들에게 '잘 재어진 시스템'은 작업 시 엄청난 효율을 가져다 주고, 행위가 달라져도 일관된 완성도를 유지시켜준다.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브랜드 제품의 사회적 일관성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 작업을 신뢰를 위해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다. 그러나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의문은 다른 부분에 있었다. 왜 우리는 우왕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든 '정제된' 언어로 정의하려고, 그렇게 정제된 가치와 디자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으며, 소비자에게 유익(이하 수용자)을 디자인을 통해 그 가치를 일러나 읽어낼 수 있을지? 라는 것. 마땅 시스템을 정리하고 다른 곳에 적용해보

juicyaloe님 외 18명이 좋아합니다

8월 4, 2021

댓글 달기...



shwrks_

shwrks_ 디지털 복제시대, 아우라의 부활?

Keyword : reproduction, NFT, aura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두번째

아주 먼 옛날, 복제가 어려웠던 시기의 예술품은 시간 속에서 축적된 진품성, 일회성, 지속성 등을 지녔다. 이러한 유일성 등을 벤아민은 '아우라'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 시절 예술품들은 '아우라'를 지니며 제각각의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복제 기술이 발달하고 예술품이 제각각의 용도로 해방되면서 예술작품은 전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예술 생산에서 진품성 평가는 척도가 효력을 잃게 되면서 예술의 지위와 사회적 기능도 변화했다. 사람들은 예술품의 수송적 기능을 부차적으로, '예술적'인 기능을 추가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 예술품을 자신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유일한 예술품을 보러 찾아가는게 아닌, '복제'를 통해 감상하고 느낀다.

"아우라를 파괴하는 일은 오늘날의 지각이 갖는 특징이다." - 밥터 벤아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중

사건(디자인을 하면서 만나는 예제는 대부분 복제물이다. 아닐까? 맥락에서는 책이나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매체도 (너무 당연하게도) 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들이다. 각각의 결과물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다. 어느 하나가 유일한 튀어나 우월하지 않고, 모두 같은 정보와 메시지를 복제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복제물의 강력한 힘이다.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어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ctrl+c, ctrl+v 한번이면 모든 데이터를 똑똑 복제할 수 있다. 데이터로 존재하는

juicyaloe님 외 27명이 좋아합니다

8월 25, 2021

댓글 달기...